戊申字本『老乞大諺解』의 善本과 교정 고찰

박 철 민*

1. 서론
2. 戊申字本『老乞大諺解』의 현전본과 서지 사항
3. 교정 유형
4. 결론

초록: 본 연구는 국내 공공기관 소장의 戊申字本『老乞大諺解』를 중심으로 교정 유형과 선본을 고찰한 것이다. 1670년경 인출된 무신자본『노걸대언해』는 1944년 경성제국대학 영인본 이후 동일 저본이 1973년, 2003년 영인되었으며, 인터넷으로도 같은 책의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해당 저본은 중국, 대만 등에서 간행된 영인본의 저본이다. 즉, 동일한 책을 바탕으로 약 70여 년간 국내·외 연구에 활용된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국내 소장본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 영인본으로 활용된 저본을 교정한 卷下가 확인되었다.

2장에서는 국내 무신자본『노걸대언해』의 소장처와 서지사항을 소개하고, 확인된 약 1,260여개의 교정 내역을 바탕으로 현전본의 내용적 관계도를 정립하였다. 이후 현전 무신자본『노걸대언해』는 크게 A계통과 B계통으로 나누고, A, B의 인출본을 다시 종이, 필사 등으로 수정한 A″, B″의 존재를 소개하였다. A는 현전본이 확인되지 않으나 A″의 수정 흔적을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A″는 규장각에 3질이 존재한다. B는 A를 바탕으로 교정한 문헌이며, 계명대 소장본이 이에 해당한다. B에서 교정이 잘못되거나 놓친 부분을 다시 수정한 것이 B″이다. B″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奎1528이 해당한다. 이 중 형태·내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대구가톨릭대학교와 규장각 소장의 奎1528을 선본으로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한어 원문, 한글의 한음 표기, 언해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교정 내역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한어 원문의 경우 3가지, 한글의 한음 표기의 경우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개하였으며, 언해문은 어휘와 문법 요소로 나누어 교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박사과정.

결론에서는 확인된 무신자본『노걸대언해』판본들이 17세기 조선시대 중앙기구에서 이루어진 교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소개하였으며, 추후 영인·역주 사업, 관련 연구, 정본화 등의 진행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핵심어 : 노걸대언해, 노걸대, 교정, 선본

1. 서론

이 글은 조선시대 지속적으로 간행된 老乞大諺解類 중 1670년(현종 11) 무렵 인출된 戊申字本『老乞大諺解』의 교정과 善本을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노걸대언해류는 16세기 초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飜譯)老乞大』,[1] 1670년경 인출된 무신자본『노걸대언해』, 1745년(영조 21) 평양에서 간행된 평양판『노걸대언해』,[2] 1763년(영조 39) 간행된『老乞大新釋諺解』,[3] 1795년(정조 19) 간행된『重刊老乞大諺解』[4]가 있다. 이 중 무신자본『노걸대언해』는 1944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영인[5]

1) 해당 자료는 1970년대 발견되어 영인되었다. 발견 당시 최세진이 편찬한『四聲通解』에「飜譯老乞大朴通事凡例」가 부기된 점과 표기의 특징 등으로 보아『번역노걸대』로 명명되어 학계에 통칭되고 있다. 그러나 본 문헌의 권수제가『노걸대』인 점과 안병희 등 몇몇 연구자에 의하여 해당 문헌이『사성통해』의「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문본『노걸대』와 구분을 짓고, 학계에 통용되는 용어를 절충하는 차원에서『(번역)노걸대』로 표기하도록 한다. 권상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권하의 경우 성암문고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나 명확하지 않다.

2) 현재 규장각에 1질이 소장되어 있으며, 권하의 권말에 '平壤監營重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해당 자료는 서문과『승정원일기』등의 기록을 통해 1745년 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3)『노걸대신석언해』는 방종현, 1946「노걸대언해」(『한글』11집 2호)에서 송석하 소장의 권2와 권3이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송석하 구장본은 한국전쟁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권1의 경우 안병희(1996)에 의해 미국 컬럼비아대학 소장본이 소개된 바 있다. 또 박철민, 2018「조선시대 雙行註音體裁 漢學書의 漢音 표기 변천 연구」(『규장각』53)을 통해 소재지는 알 수 없으나, 권2가 현전함을 알 수 있다.

4) 해당 자료의 간행 시기는 그간 언해본에 간기가 없으므로『중간노걸대』의 권말 간기를 통해 1795년 간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하였었다. 필자가『누판고』를 살펴본 바 언해본도 1795년에 간행되었다.

한 뒤, 1973년 아세아문화사,[6] 2003년 규장각 영인본[7] 등으로 널리 배포되어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8]

영인본의 저본은 규장각 소장의 奎2044이며, 해당 본은 방종현(1946),[9] 안병희(1996)[10] 등의 연구와 규장각 사이트[11]에 수록된 정승혜의 해제에 의하여 저본에 오류가 있음이 알려졌음[12]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활용[13]되어 왔다.[14] 게다가 2003년 편찬된 자료집(이하 一集本),[15] 2006년 간행된 譯註本의 저본도 오류가 많은 奎2044본임이 확인된다.[16]

한미경(2012)에 따르면 무신자본『노걸대언해』관련 연구는 노걸대언해류 연구

---

5)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1944『老乞大諺解』,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6) 아세아문화사, 1973『老乞大・朴通事諺解』, 아세아문화사.

7) 서울대학교규장각, 2003『老乞大・老乞大諺解』, 서울대학교 규장각.

8) 영인본 이외에도 규장각 사이트에서 원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영인본과 같은 奎2044이다.

9) 방종현, 1946「노걸대 언해의 영인원본과 정정본과의 비교」『한글』11집 3호.

10) 안병희, 1996「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異本」『인문론총』35, 해당 연구에서는 奎2044가 [廂庫]라는 인문이 답인되어 있기 때문에 영인의 저본으로 선정되었을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

11) http://e-kyujanggak.snu.ac.kr/index.jsp

12) 이외에도 기존 영인본의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본을 저본으로 새로 영인한 1945년 경성제국대학 영인본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당시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후 미정정본을 저본으로 영인이 지속된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1945년 영인본은 현전본 또한 적어 대학 소장본으로는 경북대 소장본만이 확인될 뿐이다. 해당 영인본에 대해서는 안병희(1996)를 참조할 수 있다.

13) 예를 들어 전재호, 1973「노걸대언해 색인」(『어문학』28)의 경우 미정정본을 중심으로 어휘 색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정정본에서 '여돏'을 誤植한 '여돍'도 어휘 목록에 들어가게 되었다.

14) 일부 연구의 경우 위 방종현(1946), 안병희(1996)을 참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그 수가 적다.

15) 박재연 교점, 2003『『노걸대』・『박통사』원문・언해 비교 자료』,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16) 정광, 2006『역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신구문화사. 저본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원문을 살펴본 결과 오류가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확인되며, 이로 보아 영인으로 널리 알려진 奎2044가 저본일 가능성이 높다.

중 25.2%에 해당한다고 한다.[17]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근까지도 오류가 많은 영인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18] 즉 1944년 영인 이후 약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정정본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본의 古代文字資料館[19]에서 제공하는 「『老乞大』槪說」에 따르면 1977년 대만 聯經出版事業公司 영인본[20]과 2005년 중국 中華書局 영인본[21]도 이 미정정본을 저본으로 영인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22]

필자는 영인된 무신자본 『노걸대언해』의 원문을 입력하면서 영인본에 오류가 있음을 인식하고, 오류를 교정한 善本의 유무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공공기관 소장 무신자본 『노걸대언해』를 열람[23]하였으며, 국내에 총 7종이 현전하고 있음을 확인[24]하였다. 또한 오류가 확실한 부분을 먼저 정리한 뒤 교정 유무를 확인하였다.

노걸대언해류 중 『(번역)노걸대』·평양판 『노걸대언해』·『노걸대신석언해』는 유

---

17) 한미경, 2012 「「노걸대(老乞大)」 언해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52, 240면 참조.

18) 참고문헌에 영인본을 명시한 연구가 많지 않으나, 살펴보면 소논문은 물론 석·박사 학위논문에서도 여전히 영인본을 참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여기서는 일일이 소개하지 않는다.

19) 해당 사이트는 일본 아이치현립대학(愛知縣立大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고금동서 문자자료의 연구와 공개전시 등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사이트이다. 주소는 참고문헌 참조.

20) 聯經出版, 1977 『老乞大諺解·朴通事諺解』, 台北 : 聯經出版事業公司.

21) 汪維輝編, 2005 『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 北京 : 中華書局.

22) 신용권, 2005 「《노걸대》, 《박통사》와 그 언해서의 한어사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하여」(『인문학연구』 8), 303면에서는 중국의 경우 1944년 경성제국대학 영인본이 널리 소개되었으며, 관련 연구 대부분이 무신자본 『노걸대언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23) 자료 열람은 규장각의 여러 선생님들과 계명대학교 고문헌실의 최경훈 선생님, 대구가톨릭대학교 고문헌실의 강은진 선생님, 고려대학교 구자훈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위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본고는 작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4) 한미경(2012)에서는 현전본으로 규장각 4종, 대구가톨릭대학교, 고려대 소장본을 소개하였다. 필자의 조사 결과 계명대에도 소장되어 있다. 이외 안병희(1996)을 참조하면 미국 컬럼비아대에도 내사본이 현전한다.

일본으로 비교대조군을 형성할 수 없다. 비교대조군을 형성할 수 있는 자료 중 무신자본『노걸대언해』가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므로 현전본의 관계와 교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기존 영인의 저본인 奎2044가 그대로 연구자들에게 활용된다면 연구에 있어 또 다른 오류를 양산할 수 있다.

필자는 앞서 언급한 조사를 통하여 교정 내용이 반영된 卷下[25](이하 정정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방종현(1946)에서는 권하의 교정 내역으로 143건을 소개한바 있다. 그러나 필자가 권하를 중심으로 영인본과 정정본의 원문을 교감한 결과 알려진 것보다 약 9배 정도 많은 1,260여개의 교정이 확인되었다. 본고는 확인된 교정 내역을 중심으로 교정의 유형을 간략히 소개하고, 현전본 중 善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무신자본『노걸대언해』의 현전본과 서지사항

무신자본『노걸대언해』는『통문관지』의 기록,[26] 현전 노걸대언해류의 판본,[27] 내사본의 내사기[28]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1670년(현종 11) 당시 영의정이었던 鄭太和(1602~1673)가 요청하였으며, 인출 장소는 교서관임을 알 수 있다.

위 기록만으로 무신자본『노걸대언해』의 인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인출 시기의 상한선은『통문관지』에서 언급한 인출 장소가 교서관인 점을 통해 1671년 이후로 잡을 수 있다. 무신자는 1668년(현종 9) 金佐明(1616~1671)에 의하여 주

25) 영인본의 권상에서도 오류는 발견된다. 그러나 교정된 내용이 반영된 권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권하보다 오류가 적은 탓으로 교정을 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현전하지 않은 것인지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

26)『通文館志』권8「書籍」條: "內賜老乞大諺解【二本, 康熙庚戌(1670), 陽坡鄭相國啓令芸閣鑄字印行】."

27) 현전하는 노걸대언해류는 무신자본『노걸대언해』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목판본이다.

28) "康熙十四年正月二十九日, 內賜承政院假注書李聃命,『老乞大諺解』一件 (…)."

자되었는데[29] 김좌명 사망 이후[30]인 1671년(현종 12) 8월 교서관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31] 또 내사본을 통해 인출 시기의 하한선을 1675년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무신자본 『노걸대언해』는 1671년부터 1675년 사이 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2]

〈그림 1〉 무신자본 『노걸대언해』 중 내사본(대구가톨릭대학교 소장)

무신자본 『노걸대언해』는 국내 공공기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총 7종이 확인되며, 이 중 규장각이 가장 많은 4질을 소장하고 있다. 규장각 이외 소장

29) 『현종개수실록』 9년(1668) 8월 5일: "(…) 至是, 前戶曹判書金佐明, 始以銅鐵鑄字 (…)"

30) 1857년 간행된 『淸風金氏族譜』(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 따르면 김좌명의 사망일은 3월 9일이다.

31) 『승정원일기』 현종 12년(1671) 8월 29일: "守禦廳啓曰, 本廳所儲大字六萬六千一百六字, 小字四萬六千六百二十六字, 此非軍門所儲之物, **移送校書館**之意, 敢啓. 傳曰, 知道."

32) 기존 학계에서는 『통문관지』의 기록에 따라 1670년 간행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 예로 『경서정음』의 경우 『통문관지』에 기재된 1734년(영조 10)은 淸學譯官 李聖彬(1715~?) 등이 자본을 내어 활자를 제작하던 시기로 추정되며,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실제 인출 시기는 1년 뒤인 1735년(영조 11)이므로 『통문관지』에 기재된 시기를 인출시기로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서정음』과 관련하여서는 박철민, 2018 「『經書正音』의 文獻學的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처로 고려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이하 대가대)가 있다. 이 중 고려대학교의 경우 권하만 남은 영본이며, 대가대 소장본의 경우 1675년(숙종 1) 당시 승정원 假注書였던 李聃命(1646~1701)에게 하사된 내사본이다.[33] 이외에도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이하 고전적시스템)[34]에는 미국 컬럼비아대학 소장본으로 經書正音字本『노걸대언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안병희(1996)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소장본은 무신자본이며, 고전적시스템에서 제시된 經書正音字는 입력 또는 판별[35] 오류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무신자본『노걸대언해』의 서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무신자본『노걸대언해』의 서지사항

서명	간행처	간행시기	판식	소장처
老乞大諺解	校書館	[1671년~1675년]	2卷 2册 : 金屬活字本(戊申字), 四周雙邊, 有界, 10行 19字, 半郭 24.7~8x17~17.2cm, 上下內向花紋魚尾; 註雙行, 크기 32.2~35.6x21.4~22.8cm	규장각, 고려대, 계명대,[36] 대가대, 미국 컬럼비아대.

33) 안병희(1996)에서는 해당본을 칠곡의 내사본(개인 소장)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는 안병희(1996) 각주 16번에서 밝혔듯이 당시로부터 20여년 전에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기재한 것이다. 또, 안병희(1996)에서 소개한 내사기와 대가대 소장본의 내사기가 일치하므로 동일 책임을 알 수 있다. 내사본에는 대가대의 전신 중 하나인 효성여자대학교 소장인이 답인되어 있다. 효성여자대학교는 1994년 대가대와 통합되었다. 그러므로 내사본은 1970년~1994년 사이에 개인 소장에서 대가대 소장으로 소재처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34) https://www.nl.go.kr/korcis/

35) 經書正音字는 윤병태, 1974「경서정음자고」(『도협월보』 15집 11호)에서 갑인자체를 따라 만든 목활자로 제시한 바 있다. 또 현재까지 경서정음자로 인출된 자료는 목활자본『經書正音』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36) 일반적으로 2권 2책이나, 계명대의 경우 상·하권이 합철되어 2권 1책의 형태사항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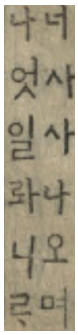
필자가 각 소장본의 실사 및 원문 교감을 진행한 결과 무신자본『노걸대언해』는 인출상 크게 2가지 판본이 있으며, 각 판본은 최소 1번 이상 종이를 덧대 교정한 흔적이 있다. 그러므로 내용적으로는 4가지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의상 인출본을 기준으로 A, B판본으로 나누고, 종이를 덧대 교정한 판본은 A″, B″로 나누며, A와 A″를 아울러 표현할 때는 A계통으로, B와 B″는 B계통으로 표현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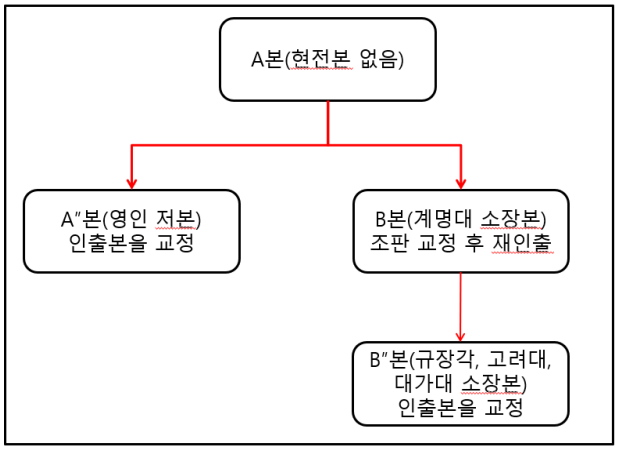
먼저 A본의 경우 현전본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인본의 저본인 규장각 소장본(奎2044)을 살펴보면 인출 이후 종이로 일부 교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 소장처의 奎2304, 奎2347에서도 확인되며, 동일한 부분에 동일한 교정이 진행된 점으로 보아 인출 이후 어느 시점에 일괄 교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위 규장각 소장의 3종은 A″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B본의 경우 계명대 소장본이 해당한다. B본의 경우 植字된 활자의 자형[37]을 보아 A본 인출 이후 동일 활자판을 교정한 뒤 인출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B본도 A본보다 교정이 많이 되었을 뿐, 교정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다. 그렇기에 B본을 중심으로 다시 종이를 덧대어 교정한 형태가 발생한다. 이것이 B″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헌은 규장각(奎1528), 고려대, 대가대 소장본이다. B와 B″의 교정 예시와 현전 무신자본『노걸대언해』를 토대로 작성한 계통도는 다음과 같다.

37) 예컨대 漢音 표기에서 'ㅇ'을 받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형이 동일 위치에서 출현한다는 점이다. 물론 'ㅇ'이 동일하게 출현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동일 위치에 출현하는 자형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인위적으로 동일하게 자형을 맞춰 조판하지 않는 한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표 2〉 무신자본『노걸대언해』B계통(B->B″)의 수정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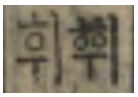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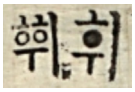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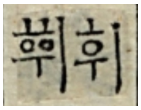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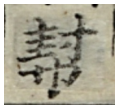
B(계명대 소장본)	B″(대가대 소장본)	B(계명대 소장본)	B″(대가대 소장본)
권하 26b 9행 2~3의 교정 모습		권하 40b 9행 1~2의 교정 모습	
			
권하 41b 9행 언해문의 교정 모습		권하 45b 7행 5~6의 교정 모습	



〈그림 3〉 무신자본『노걸대언해』의 원문상 관계도

종이를 덧대어 교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종이를 인출된 장 배면에 덧댄 이후 활자로 찍어 인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면을 살펴보아 사용된 활자는 한자의 경우 무신자를, 한글은 목활자를 사용하였다.

〈표 3〉 종이를 덧대 교정한 예

계명대(B)	奎2304(A″)	奎1528(B″)	奎2044(A″)	奎230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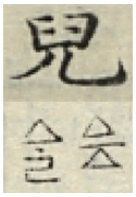
이와 같이 종이를 덧댄 교정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이외에도 종이를 자르지 않고 부족한 자형만 활자로 찍어 보완하거나, 필사한 흔적도 일부 있다.[38] 그러나 대부분은 종이를 덧댄 뒤 활자를 찍어 교정하였다.

이상 살펴본 결과를 통해 내용상 B″가 가장 보완이 잘된 문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B″에 해당하는 규장각 소장의 奎1528와 고려대, 대가대 소장본이 내용상 선본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려대 소장본의 경우 판심 상단 부분에 파손이 일부 있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규장각과 대가대 소장본이 형태·내용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선본이라 할 수 있다.

단, B″판본에서도 미교정된 사례가 발견된다. 주로 한음 표기에서 확인되는데 예를 들자면 道(3b 9)의 경우 '땋됴'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닿됴'로, 兒(19b 10)의 경우 '슷술'이어야 할 것이, '술슷'으로 인출된 것이다. 이외에 55장, 60장, 62장, 63장의 경우 장 자체가 교정되지 않았다.

38) 예컨대 '황호'라는 단어의 경우 A본 계통에서 '화호'라 인출되었다. 규장각 소장본을 살펴본 결과 '화'를 자르지 않고 'ㅇ'을 '화' 아래에 활자로 찍어 보완하거나, 붓으로 찍어 'ㅇ'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표 4〉 B″의 미교정 예

정상 표기	A″ 표기	B″ 표기	정상 표기	A″ 표기	B″ 표기
					
4a 1행 12~13	3b 9행 16~17		30a 8 14~15	19b 9행 19~10행 1	

그러므로 B″본도 내용이 완벽하게 교정된 것은 아니며, 무신자본『노걸대언해』 전후로 간행된『(번역)노걸대』와 평양판『노걸대언해』를 같이 참조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정 유형

무신자본『노걸대언해』는 각 판본별로 원문을 대조한 결과 한문, 한음 표기, 언해문 등 다방면에서 교정이 확인된다. 여기서는 영인되어 연구에 주로 활용된 A″와 내용적으로 선본에 해당하는 B″의 교정 유형을 각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출의 오류로 자형이 제대로 인쇄되지 않은 것[39]을 제외한 교정 내역을 계량하면 전체 1,269개이다. 그 중 언해문은 160번, 원문은 13번이 교정되었으며, 이외 1,096개의 교정은 모두 한음 표기에 해당한다.

1,000개가 넘는 교정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빈도가 낮은 14개의 원문과 일부 한음, 언해문의 교정 양상을 제시하도록 하겠다.[40] 또, 언해문의 교정을 살펴볼 때에는 일집본과 역주본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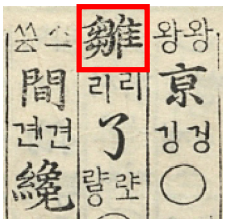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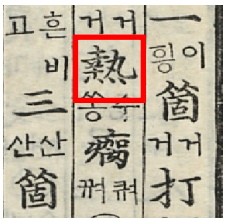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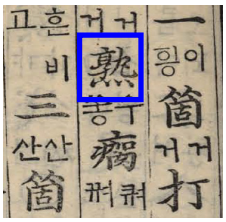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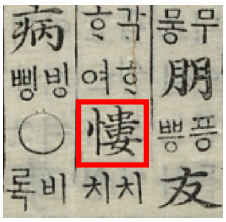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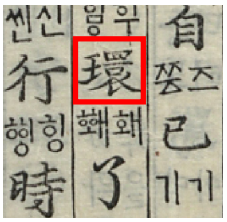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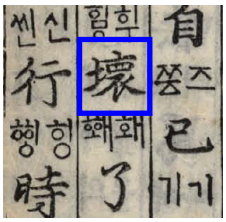
39) 규장각 소장의 A″판본 3종을 각각 검토하면 誤印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오인이 확인된 부분을 제외하고 교정 내역을 살펴보았다.

40) 추후 언해문과 한음의 교정 양상을 중심으로 각각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1) 漢語 原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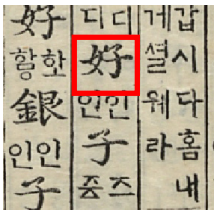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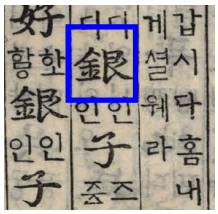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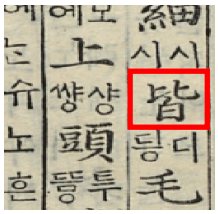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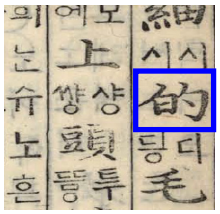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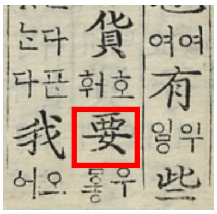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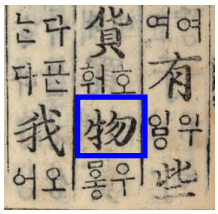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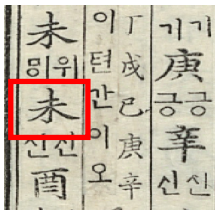
한어 원문 교정은 총 13번이 확인된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은 활자 자형의 유사성으로 인한 誤植을 교정한 것이다. 예컨대 A″본에서 離를 雛로(3a 6), 熟을 熱로(9a 2), 悽를 慺로(43a 4) 오식한 경우이다. B계통에서는 이를 모두 교정하였다. 해당 유형은 총 8번 출현한다. 다음은 해당 부분의 A″와 B″를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5〉 자형의 유사성으로 인한 한어 원문의 오식과 정정본에서의 교정 예

A″(영인본)	B″(대가대소장본)	A″(영인본)	B″(대가대소장본)
			
3a 6 1의 교정 모습		9a 2 5의 교정 모습	
			
43a 4 18의 교정 모습		43a 9 15의 교정 모습	

이외에도 자형은 크게 유사하지 않으나 A″본에서 오식되었는데, 이를 B계통에서 교정하였다. 해당 유형은 4번 출현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6〉 한어 원문에서의 오식을 정정본에서 교정한 예

A″(영인본)	B″(대가대소장본)	A″(영인본)	B″(대가대소장본)
			
12b 7 12의 교정 모습		45b 1 10의 교정 모습	
			
59b 2 18의 교정 모습		64b 10 14의 교정 모습	

이외에 한자는 맞지만, 植字할 때 글자가 뒤집어진 경우가 있다. 이는 A″본의 25b 9 15에서 1번 확인된다. B계통에서는 이를 수정하였다.

〈표 7〉 활자의 오식과 교정의 예

A″(영인본)	B″(대가대소장본)

2) 漢音 표기

중국음인 漢音을 한글로 표기한 것은 한글 표기 漢學書의 특징 중 하나이다. 중

국에는 지금도 한국에는 없는 발음이 다수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권설음인데, 과거 조선에서는 한글 반포 직후 권설음과 관련성이 깊은 正齒音과 齒頭音을 구분[41]하기 위하여 'ㅅ', 'ㅈ', 'ㅊ'의 좌우 획을 달리하여 치두음은 'ㅅ', 'ㅆ', 'ㅈ', 'ㅉ', 'ㅊ'으로, 정치음은 'ㅅ', 'ㅆ', 'ㅈ', 'ㅉ', 'ㅊ'[42]으로 표기를 하였다.[43]

여기서 이를 설명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한음 표기 교정이 위 치두음과 정치음의 혼동을 바로잡은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음 표기의 교정은 전체 1,096개가 확인된다. 이를 한자의 종별로 추려내면 363종의 한자를 대상으로 수정되었으며 이중 정치음과 치두음의 성모를 지닌 한자가 243종으로 전체 교정 대상 한자의 66.9%에 해당한다. 정치음과 치두음을 교정한 내역의 예는 다음 표와 같다.

---

41) 아래 표는『사성통해』에 제시된『홍무정운』의 韻圖이다. 살펴보면 치두음은 精, 淸, 從母 등에 해당하며, 정치음은 照, 穿, 牀母 등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정치음이 표기된 한자들을 비교・검토하면 현대의 중국어에서 권설음인 'zh-', 'ch-' 'sh-' 등과 일치하며, 치두음은 치음 중 비권설음과 일치한다. 당시 권설음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운도를 보아 조선에서 중국 발음을 구분하기 위하여 획의 길이를 조정한 것은 분명하다.

洪武韻31자모								
五音	角	徵	羽		商		宮	半徵半商
五行	木	火	水		金		土	半火半金
七音	牙音	舌頭音	脣音重	脣音輕	齒頭音	正齒音	喉音	半舌半齒
全淸	見ㄱ·견	端ㄷ둰	幫ㅂ방	非ㅸ뷔	精ㅈ징	照ㅈ·쟝	影ㅇ:힝	
次淸	溪ㅋ키	透ㅌ틍	滂ㅍ팡		淸ㅊ칭	穿ㅊ춴	曉ㅎ:향	
全濁	群ㄲ뀬	定ㄸ·띵	並ㅃ:뼝	奉뼝·뿅	從ㅉ쭝	牀ㅉ쫭	匣ㆆ·햫	
不淸不濁	疑ㅇ이	泥ㄴ니	明ㅁ밍	微ㅱ뮈			喩ㅇ·유	來ㄹ래 日ㅿ·싕
全淸					心ㅅ심	審ㅅ:심		
全濁					邪ㅆ쎠	禪ㅆ·쎤		

4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3『훈민정음』, 340-341면: "漢音齒聲은 有齒頭正齒之別ᄒᆞ니, ㅈㅊㅉㅅㅆ字ᄂᆞᆫ 用於齒頭ᄒᆞ고 ㅈㅊㅉㅅㅆ字ᄂᆞᆫ 用於正齒ᄒᆞᄂᆞ니 (…)"

43) 정치음과 치두음은 한문본『訓民正音』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1449년 인출된『석보상절』에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정치음과 치두음은 1446년 반포 이후부터 1449년『석보상절』인출 이전에 표기가 확정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8〉 정치음과 치두음의 교정 예[44]

내용	영인본	정정본	출처	비고
這	져져	져져	1a 2	우측음만 교정된 경우
親	친친	친친	1a 6	
從	쭝충	쭝충	1a 6	
出	츏츄	츏츄	1a 7	
施	슻스	슻스	1a 3	좌측음만 교정된 경우
舍	셔셔	셔셔	1a 4	
竹	줗주	줗주	29b 4	
再	재재	재재	29b 5	
子	즋즈	즋즈	29b 10	
匙	쯎츠	쯎츠	30a 2	
只	즋즈	즋즈	64a 9	
漆	칳치	칳치	30a 1	좌측음과 우측음 모두 교정된 경우
針	진진	진진	61b 2	
這	져져	져져	29b 4	좌측음과 우측음의 위치를 교정한 경우
細	시시	시시	53b 2	

이외에도 A계통에서 자형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식된 것을 B계통에서 교정한 유형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藥韻의 경우 종성에 'ㅸ'을 사용[45]하는데, 'ㅱ'으로 오식된 경우라거나, 支韻 內 齒音의 경우 받침에 'ㅿ'이 사용[46]되어야 하는데 'ㅇ'이 잘못 사용된 경우, 藥韻을 제외한 입성자에는 'ㆆ'이 사용[47]되어야 하는데 'ㅇ'이 사용된 경우 혹은 그 반대로 받침 'ㅇ'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ㆆ'이 사용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표기들은 대부분 정정본인 B계통에서 올바르게 교정되었다.

44)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교정 목록을 부록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받았다. 그러나 필자가 정리한 교정 목록이 20장이 넘기에 지면상 수록할 수 없었다. 추후 언해, 한음 표기로 나누어 고찰을 하며 교정 목록을 부록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45) 『四聲通解』「凡例」 13번째 조항: "(…) 『通攷』於諸韻入聲, 則皆加影母爲字. 唯藥韻, 則其呼似效韻之音, 故『蒙韻』加'ㅱ'爲字, 『通攷』加'ㅸ'爲字. 今亦從『通攷』, 加'ㅸ'爲字."

46) 『四聲通解』「飜譯老乞大朴通事凡例」【支紙置三韻內齒音諸字】 조항: (…) 以'ㅿ'爲終聲後, 可盡其妙 (…)."

47) 『四聲通解』「四聲通考凡例」 8번째 조항: "(…) 俗音終聲於諸韻, 用喉音全淸'ㆆ' (…)."

〈표 9〉 한음 표기에서 종성의 오류를 교정한 예

내용	영인본	정정본	출처	유형
交	갏쟈	갏쟈	12a 4	오식된 'ㅸ'을 'ㅱ'으로 교정
老	랗롼	랗롼	20b 3	
牢	랗롼	랗롼	23a 4	
要	햘얘	햘얘	24a 6	
要	햘얘	햘얘	24a 7	
老	랗롼	랗롼	27a 2	
高	갏잔	갏잔	33a 10	
絡	랗로	랗로	27a 8	오식된 'ㅱ'을 'ㅸ'으로 교정
脚	갏교	갏교	30a 4	
脚	갏교	갏교	32a 8	
昨	짶조	짶조	36a 6	
若	샾쇼	샾쇼	39a 1	
落	랗로	랗로	43b 10	
蜜	밍미	밍미	22b 2	오식된 'ㅇ'을 'ㅎ'으로 교정
姪	찡지	찡지	30b 10	
服	뽕부	뽕부	36b 7	
畜	흉휴	흉휴	43b 7	
搭	당다	당다	45b 3	
戌	슝슈	슝슈	64b 10	
房	빤방	빵방	27b 3	이외 기타 종성의 교정
治	찡치	찢치	42b 5	

위에서 'ㅸ'을 'ㅱ'으로 교정된 경우 모두 爻韻에 해당하는 자형이다. 한글 표기 한음을 운목별로 정리한『洪武正韻譯訓』과『續添洪武正韻』,『四聲通解』등을 살펴보면 효운과 蕭韻의 경우 종성에 'ㅱ'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交부터 高까지는 모두 종성에 'ㅱ'이 있어야하는데, 이것이 A계통에서는 'ㅸ'으로 오식한 경우가 있다. 정정본에서는 이를 수정한 것이다.

반대로 'ㅱ'을 'ㅸ'으로 교정한 한자들은 모두 약운에 해당한다.『사성통해』에서

는『四聲通考』의 범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세종조에 편찬된『사성통고』에 이미 약운은 'ㅸ'을 종성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후 한음 표기 중 약운은 모두 'ㅸ'을 사용하는데, 영인본에서는 'ㅸ'으로 오식된 경우가 있다. 정정본에서는 이를 모두 교정하였다.

다음으로 'ㅇ'을 'ㆆ'으로 교정한 사례이다. 해당 한자들은 현대 한국에서도 받침 'ㄱ', 'ㄹ'에 해당하는 한자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받침 'ㅂ'을 가진 한자들은 모두 입성에 해당한다. 약운을 제외한 입성의 경우 'ㆆ'으로 종성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A계통에서는 이들 한음 표기 중 일부가 'ㅇ'으로 오식되어 있다. 이는 'ㆆ'과 'ㅇ'의 자형상 유사하여 발생한 오식으로 판단되는데, 정정본에서는 대부분 'ㆆ'으로 교정이 되었다.

기타 종성의 교정 예로 든 房은 전통적으로 종성 'ㅇ'을 사용한다. 그러나 A계통에는 'ㄴ'으로 오식된 경우가 존재한다. 정정본에서는 'ㅇ'으로 바로 잡았다. 또 治는 支韻에 속하며, 초성이 'ㅉ'으로 치음임을 알 수 있다.『사성통해』등 한글 표기 한음을 수록한 운서에는 지운 내 치음의 경우 미묘한 발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ㅿ' 사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A계통에서는 종성 외 초성에서도 'ㅿ'이 'ㅇ'으로 오식된 경우가 보인다. 정정본에서는 이들을 대부분 'ㅿ'으로 교정하였다.

3) 언해문

앞서 살펴본 한어 원문, 한음 표기의 교정 외에도 정정본에서는 A계통에서 오식된 언해문을 교정하여 인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크게 어휘와 문법으로 그 유형을 나누고, 교정의 몇가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일집본과 역주본에서 오식된 부분을 찾아 같이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다음은 어휘부분의 교정 사항의 예시이다.

〈표 10〉 어휘의 교정 예

영인본	정정본	출처	영인본	정정본	출처
이재	이제	4b 5	후ᄌᆞ식	훗ᄌᆞ식	43b 10
잣언해셔	잣안해셔	5b 5	녀기ᄑᆞ져의드러가	녀기의집의드러가	44a 5
네ᄃᆞ려	너ᄃᆞ려	10b 6	됴혼증나모실로 밋고	됴혼종나모실로 밋고	47a 1
여ᄃᆞᆭ	여ᄃᆞᆮ	11a 1	셕량은	석량은	47a 7
ᄯᅩ안머의	ᄯᅩ언머의	25a 3	샤의	샤인	49a 5
님폇ᄂᆞ뇨	닙폇ᄂᆞ뇨	28a 10	노릇	노롯	50a 4
화살녀흘둥ᄃᆡ도개사쟈	화살녀흘궁ᄃᆡ동개사쟈	29b 6	쉬냥	쉰냥	53a 7
머오ᄂᆞᆫ	메오ᄂᆞᆫ	32b 10	빨것시라	쁠것시라	57b 9
난폐권ᄒᆞ니	납폐권ᄒᆞ니	34a 5	시으갓	시욱갓	61a 4
닷무우	댓무우	34b 2	쇠ᄲᆞᆯ	쇠ᄲᆞᆯ	61b 1
무지지어	무리지어	44a 3	쉬무우	쉿무우	34b 3

위는 모두 일집본과 역주본에서 영인본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이재'의 경우 정정본에서는 '이제'로 교정하였다. 그러나 일집본과 역주본에서는 '이재'로 입력하였다. 일집본은 여러 老乞大諺解類의 원문을 시기순으로 나열하여 어휘 및 표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용이하다. 그런데 일집본이 미정정본을 중심으로 입력되었으므로 언해문의 통시적 변화를 정확히 고찰하기 어렵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이제 갑시 엇더ᄒᆞ고(『(번역)노걸대』, 16세기 초)
<u>이재</u> 갑시 엇더ᄒᆞ뇨(무신자본 『노걸대언해』, 1670년 경)
<u>이재</u> 갑시 엇더ᄒᆞ뇨(평양판 『노걸대언해』, 1745년)
이제 갑시 엇더ᄒᆞ뇨(『중간노걸대언해』, 1795년)

위 예문은 오식된 '이재'가 들어간 언해문 부분을 일집본에 수록된 것과 동일하게 제시한 것이다. 예문만을 따른다면 『(번역)노걸대』에서 '이제'라는 표현이 17

세기부터 '이재'로 표현되었다가 다시 18세기 말에 '이제'로 표현되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 혹은 '이재'와 '이제'는 당시 혼동되어 사용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신자본『노걸대언해』에서 '이제'로 교정된 점과 평양판『노걸대언해』가 무신자본『노걸대언해』를 바탕으로 교정이 이루어진 것[48]임을 알고 있다면 '이재'는 오기이며, '이제'가 당시의 올바른 표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재'는 옛한글을 어휘별로 수록한『고어사전』[49]에도 수록되었는데, 그 예문으로 무신자본『노걸대언해』A본의 언해문을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만약 정정본의 존재가 알려져 '이재'가 '이제'로 교정되었음을 알았다면『고어사전』에 수록되지 않았을 것이다.[50] 또, 김완진(1976)[51]에서는『(번역)노걸대』와 무신자본『노걸대언해』를 비교하며 확인한 오류를 35쪽부터 71쪽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필자가 확인한 결과 무신자본『노걸대언해』에서 확인된 오류의 대부분은 B″본에서 교정되었다. 만약 김완진(1976)에서 B″본을 저본으로 비교하였다면 무신자본『노걸대언해』의 오류가 많이 소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언해문의 경우 협주로 식자된다. 그런데 이 중 좌우가 변경되어 식자된 경

48) 평양판『노걸대언해』서문과『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활자본이 드물게 되자 사역원에서 활자본의 한음 표기를 교정하여 평양에 보내어 판각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 때 평양감영에 보내어진 활자본은 무신자본『노걸대언해』중 A계통의 판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언해문도 교정한 흔적이 있지만 일부 언해문의 경우 교정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61b 1에서 牛角에 해당하는 언해문을 들 수 있다. 무신자본『노걸대언해』A계통에서는 '쇠ᄲᆞᆯ'로 표기되었으나, B계통에서는 '쇠ᄲᆞᆯ'로 교정되었는데, 평양판『노걸대언해』에서는 '쇠ᄲᆞᆯ'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평양판『노걸대언해』가 무신자본『노걸대언해』A계통의 교정본을 바탕으로 중간되었음을 암시한다. 평양판『노걸대언해』에서 '이제'가 '이재'로 표기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49) 남광우, 2013『고어사전』, 교학사. 이 사전은 1960년 동아출판사에서 처음 출판된 이후 1971년 내용을 補正하여 1971년 일조각에서 출판되었고, 1997년 교학사에서 다시 출판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출판된 사전이다. 본 연구에 참조한 것은 1997년 초판인 교학사의 12쇄본이다.

50) 표에서 제시한 오식된 어휘 중 '여ᄃᆞᆭ', '안머', '머오-', '닷무우', '무지', '후ᄌᆞ식', '노릇', '시으갓', '쇠ᄲᆞᆯ'의 경우『고어사전』에서 모두『노걸대언해』의 예문을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51) 김완진, 1976『老乞大의 諺解에 대한 比較硏究』, 財團法人 韓國硏究院.

우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역주본에 그대로 수록하여 번역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래는 그 예시인데,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성을 위하여 원문과 같은 세로쓰기로 제시한다.

〈표 11〉 언해문의 본문이 뒤바뀐 예

영인본	정정본	출처	영인본	정정본	출처
구의만과 口舌의 익을죠낫거든	구의죵과 口舌의 익을만낫거든	42a 10	마등빗체히 매문훈비단	매등빗체히 마문훈비단	22b 4

영인본에서 '구의만'은 정정본에서 '구의죵'으로 교정되었으며, '익을 죠낫거든'은 '익을 만낫거든'으로 교정되었다. 이같은 오류의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죵'을 '죠'로 오식한 것이며, 하나는 오식된 '죠'와 '만'의 위치를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영인본만을 저본으로 삼았던 역주본에서는 '죠낫거든'에 해당하는 『(번역)노걸대』 언해문을 제시하고, '죠낫거든'에 대한 해석으로는 '遭낫거든'으로 보이며 '맛낫거든'의 착오로 추정하였다.[52] 즉, '죠'를 遭의 한자음으로 분석한 것이다.

또한 영인본에서 오식된 '마등'과 '히매'는 정정본에서 '매등'과 '히마'로 교정되었지만 역주본과 일집본은 영인본의 오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역주본의 경우 '마등'은 '매등'의 착오라 추정하였지만 '히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53]

문법에서도 교정이 다수 이루어졌다.

52) 정광(2006) 361면 각주 21번 참조.

53) 김완진(1976)에서도 '구의만', '죠낫거든', '마등' 등을 모두 오식으로 소개한 바 있다.

〈표 12〉 무신자본『노걸대언해』의 문법 교정 예

영인본	정정본	출처	영인본	정정본	출처
羊져재	羊져제	1b 2	골치일ᄑᆞ고	골치알프고	36a 1
사오나온물	사오나온물쩨	10a 9	믜혼복애	믜혼복에	36b 9
혼냥이	혼냥애	16b 1	우에ᄂᆞᆫ	우희ᄂᆞᆫ	45b 3
연야토록	연야토록	22a 1	훠롤신을딘대	훠롤신을띤대	47b 2
디튼초록빗체	디튼초록빗체	22a 3	어딘남진톄	어딘남진톄	49a 10
네손조ᄀᆞᆯ히여	네손조ᄀᆞᆯ힉여	29a 5	은올바드되	은을바드되	52a 2
사돈짓어먹오라비	사돈짓어믜오라비	31b 2	주릐오	주리오	52a 6

위 표는 문법의 교정을 일부 제시한 것이다. 살펴보면 '져재'는 '져제'로 '우희'는 '우회'로, '혼냥이'는 '혼냥애' 등을 교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몇 가지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問 : 셰(稅) 바칠 갑시 언머고 / 答 : 혼 냥이(애) 서푼식이오.(무신자본『노걸대언해』16b 1)

위 예문을 살펴보면 질문은 세금으로 내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이다. 여기서 답변에 사용할 표현은 '혼 냥이'보다는 한 냥당 얼마라는 문맥에 맞춰 '혼냥애'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어딘남진톄'는 '어딘남진톄'로 교정되었는데, 영인본을 그대로 따른다면 '어디-+-ㄴ+남진+톄'로 형태소를 분석해야하지만, 교정된 내용을 따르면 '어디-+ㄴ+남ᄌᆞ+-ᄂᆡ톄'로 분석할 수 있다. 의미상 '착한 남자인 척'으로 해석해야 하는 언해문이다.[54] 그러므로 정정본의 내용이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결과 기존 영인된 A계통은 한어 원문, 한음 표기, 언해문 등 다양

54) 원문은 '정면으로 안자 어딘 남진톄 ᄒᆞ거든'이다.

한 방면에서 오류가 보이며, 이러한 오류들은 대부분 B계통에서 교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에서 다시 종이를 덧대는 등의 교정이 첨가된 B″가 내용적으로 선본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국내 공공기관 소장 무신자본 『노걸대언해』을 중심으로 교정 유형과 선본을 고찰하였다. 무신자본 『노걸대언해』의 인출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기록상 1671년(현종 12)을 인출 시기의 상한선으로 볼 수 있고, 내사본의 내사시점인 1675년을 인출 시기의 하한선으로 잡을 수 있다.

해당 문헌은 1944년 경성제국대학 영인 이후 1973년, 2003년 영인본이 배부된 바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해당 영인본들은 규장각 소장의 奎2044를 저본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본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 대만 등에서 간행된 영인본의 저본이기도 하다. 이 영인의 저본은 방종현(1946), 안병희(1996), 규장각 사이트에 수록된 정승혜의 해제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문에서 오류가 많아 연구에 활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 70여 년간 연구, 영인, 일집, 역주 등 무신자본 『노걸대언해』가 활용된 여러 분야에서 미정정본이 저본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이는 원본 접근의 어려움과 영인본 자체에 대한 신뢰도로 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국내에 소재된 7종의 무신자본 『노걸대언해』를 살펴본 결과 권상은 모두 동일하며, 권하의 경우 알려진 것보다 약 9배 더 많은 교정 내역을 확인하였다. 또 이를 기반으로 규장각, 계명대, 대가대, 고려대 소장본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권하는 크게 미정정본과 정정본으로 나눌 수 있다. 또 각각 종이를 덧대거나 필사가 되는 등 보완작업이 진행되었으므로 내용상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A본으로 현전본은 확인되지 않으나 영인의 저본인 A″에서 종이를 덧대 수정한 흔적이 있어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A″는 A본의 일부를 교정하여 보완한 것이다.

A″본은 현재 규장각에 3질이 전한다.

또, A″와는 별개로 A를 교정하여 인출된 B본이 있다. 인출면과 자형 등을 보아 A본과 B본 간의 인출 시점은 그리 멀지 않다. B본은 현재 계명대 소장본이 해당한다. B본에서도 일부 미정정본이 있고, 일부는 잘못 교정되기도 하였다. 이를 종이 및 필사 등으로 보완한 것이 B″본이다. 해당 자료는 고려대, 대가대 소장본과 규장각 소장본 중 奎1528이다. 이 중 고려대 소장본은 형태적으로 일부 파손이 있어 연구에 활용하기는 다소 염려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대가대 소장본과 규장각 소장의 奎1528가 형태・내용적으로 선본에 해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A″와 B, B″는 모두 각각의 가치를 지닌다. A″는 최초 인출 당시의 모습과 가장 가까우며, B는 A를 교정한 직후의 모습으로 B″로 교정되기 전 모습을 보여준다. B″는 현전하는 문헌 중 가장 상세히 교정된 문헌이다. 그러므로 A″와 B, B″는 조선시대 중앙기구에서 이루어진 교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영인의 저본인 A″와 선본인 B″의 원문을 대조한 결과 약 1,260여개의 교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 한음 표기의 교정이지만, 언해문, 한어 원문 자체의 교정도 이루어졌다. 한음 표기의 교정에서는 정치음과 치두음 표기의 교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상 살펴본 결과 기존 영인의 저본인 무신자본『노걸대언해』는 내용적으로 선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구에 활용되어왔다. 노걸대언해류는 국어학 뿐 아니라 복식사, 경제사, 외국어 교육, 한어학 등 다방면에서 주요한 문헌이다. 보다 세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정정본 무신자본『노걸대언해』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같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후 영인・역주 사업, 관련 연구, 정본화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존 영인본을 바탕으로 연구된 논저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논문투고일(2019. 4. 25), 심사일(2019. 5. 23), 게재확정일(2019. 6. 12)

참고문헌

1. 자료

『老乞大諺解』(戊申字本;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규장각, 대구가톨릭대학교 소장의 7종).
『老乞大諺解』(平壤板).
『鏤板考』.
『四聲通解』.
『續添洪武正韻』.
『釋譜詳節』.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淸風金氏族譜』.
『通文館志』.
『洪武正韻譯訓』.
『訓民正音』.

2. 논저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1944『老乞大諺解』,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김완진, 1976『老乞大의 諺解에 대한 比較硏究』, 財團法人 韓國硏究院.
남광우, 1972「新發見인 崔世珍 著「飜譯老乞大」卷上을 보고 : 語學的인 側面에서 그 文獻的 價値를 論함」『국어국문학』55-57.
_____, 2013『고어사전』, 교학사(12쇄) (1960년 동아출판사 초쇄, 1971년 일조각 보정판 초쇄, 1997년 교학사 초쇄).
박재연 교점, 2003『『노걸대』·『박통사』 원문·언해 비교 자료』,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박철민, 2018「『經書正音』의 文獻學的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8「조선시대 雙行註音體裁 漢學書의 漢音 표기 변천 연구」『규장각』53.
방종현, 1946「노걸대언해」『한글』11집 2호.
_____, 1946「노걸대 언해의 영인원본과 정정본과의 비교」『한글』11집 3호.
서울대학교규장각, 2003『老乞大·老乞大諺解』, 서울대학교 규장각.

신용권, 2005「《노걸대》, 《박통사》와 그 언해서의 한어사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하여」『인문학연구』8.
아세아문화사, 1973『老乞大朴通事諺解』아세아문화사.
안병희, 1996「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異本」『인문론총』35.
윤병태, 1974「경서정음자고」『도협월보』15집 11호.
전재호, 1973「노걸대언해 색인」『어문학』28.
정 광, 2006『역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신구문화사.
한미경, 2012「「노걸대(老乞大)」언해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서지학연구』52.

3. 사이트

〈국내〉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nl/)
대구가톨릭대학교(http://www.cu.ac.kr/index.php)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index.jsp)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main.do)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국외〉
일본 고대문자자료관(http://www.for.aichi-pu.ac.jp/museum/)

Abstract

A study on the best version of 'musinja' manuscript of '*Nogeoldae-onhae*' and its revised content

Park, Cheol-Min

This study examines the best version of 'musinja' (type of print used during Joseon dynasty) of manuscript of '*Nogeoldae-onhae*' and its revised content, stored in the archives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Nogeoldae-onhae*' was first printed in the 1670s. In 1944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published a photocopied edition; in 1973 and in 2003,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viously: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re-published it and it is now available on the Internet. This version has been published in China and Taiwan as well.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same book has been used in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for the past 70 years.

However, as a result of a research I have conducted on the manuscripts found in collections of Korean institutions, I discovered another version, that is a revised version of 'musinja' manuscript of '*Nogeoldae-onhae*'.

In the second chapter of this paper, I presented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about the location of each version archived in Korea. Then, I established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ntent of found versions based on an inventory of ca. 1,260 examples of revision.

As a result, I have divided the versions of 'musinja' of manuscript of '*Nogeoldae-onhae*' into A and B. Consequently, I marked A″, B″ as revised versions of A and B texts.

There is no confirmed 'A' version, but a supposition about its content can be made through the trail of modifications found in the 'A″'version. There are three sets of 'A″'

version in Kyujanggak.

‘B’version is corrected on the basis of ‘A’version and is currently archived in Keimyung University’s collection. The ‘B″’ version is the revised version of ‘B’, in which some calibration errors and missing parts of ‘B’ were corrected. ‘B″’ is in the possession of Daegu Catholic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nd Kyujanggak (with assigned number of 奎1528). Considering both form and content aspects of B″version, I consider the items in Daegu Catholic University's collection and Kyujanggak’s archives (奎1528) to be the best versions.

In chapter 3, I have introduced the contents of each modified example and divided them into Chinese and hangul text.

In conclusion, the study of each version of the manuscript of ‘musinja’ of ‘*Nogeoldae-onhae*’ shows in general the process of script revision, undertaken by the central institutions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17th century, as I have shown in this paper. What is more, further study on creating a standardized version is required and a new translation and modification to the photocopied version of such standardized text is in order.

Key words : *Nogeoldae-onhae*(老乞大), *Nogeoldae*(老乞大), revised content, best version.